

단맛 쓴맛의 왕

* 10/28(목) 하박국 1-3장 / 열왕기하 9 24-25장

| 유다왕국 18-25장 | | |
|---|---|--|
| <p>유다 왕 히스기야 18-20장</p> <p>유다 왕 므낫세 21:1-18</p> <p>유다 왕 아몬 21:19-26</p> | <p>유다 왕 요시아 22장-23:30</p> <p>유다 왕 여호아하스 23:31-35</p> <p>▶ 유다 왕 여호야김 23:36-24:7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악한 왕 / 11년 통치 · 엘리야김 → 여호야김 · 심판의 도구 <바벨론> 등장 · 므낫세의 모든 죄의 결과 | <p>▶ 유다 왕 여호야긴 24:8-17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악한 왕 / 3개월 통치 · 바벨론에 사로잡힌 여호야긴 <p>▶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, 멸망 24:18-25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악한 왕 / 11년 통치 · 맛다니아 → 시드기야 · 예루살렘 함락 · 바벨론의 상에 앉은 여호야긴 |

Before 줄치며 읽기

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
하나님을 묵상하며
통독해 보십시오.

After 묵상하기

나의
신앙의 열매는
무엇입니까?

유다의 죄가 무르익었습니다.

패역, 겁탈, 강포, 변론, 분쟁이
그들의 얼굴입니다(합 1:3).

하나님, 왜 유다의 죄를 방관하십니까.

‘껴안는 자’ 하박국, 문제를 껴안았습니다.

•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.

하나님께서 답하십니다(합 1:5-11).

갈대아(바벨론)는 심판의 도구입니다.

심판의 대상보다 심판의 도구가,
유다보다 바벨론이 더 악합니다.

하나님,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옳으니까(합 1:13, 17).

포악한 자는 미래가 없습니다. 바벨론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.

그들의 죄, 교만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(합 2:3-4).

하나님과의 대화로,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.

현 위치는 멸망의 늪입니다.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합니다.

“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(합 2:4).”

‘문제를’ 껴안던 자가 ‘하나님을’ 껴안는 자가 되었습니다.

“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

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(합 3:18).”

참고도서

100주년기념 성서주석
두란노 HOW주석
성서유니온 열왕기
통성경 길라잡이
이야기로 푸는 소선지서

눈앞의 현실로, 신앙에 회의가 들 수 있습니다.
분명한 것은 <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>는 것입니다.

사람의 시간과 다른,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.
결국, 하나님의 <선>이 이뤄집니다. <영광>이 가득합니다(합 2:14).

• 죄는 다나 그 열매는 쓰다.

“유다야, 너도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(호 6:11, 공동번역).”
수확의 계절, 추수의 때가 왔습니다. 죄는 달았으나 그 열매는 쓰디씹습니다.

<심판의 도구> 바벨론이 등장합니다.
므낏세가 지은 모든 죄 때문에, 유다를 쳐 멸하려
여호와께서 보내신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(24:1-4, 단 1:1-2).
<심판의 주어>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.

앗수르가 그랬던 것처럼,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.
히스기야는 위기의 순간에 주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(19:14-19, 사 37:14-20).
여호야킨은 히스기야가 아닙니다. 기도하지 않습니다.
적에 백기를 듭니다. 성전과 왕궁의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.
다 포로로 끌려갑니다(24:12-14).

유다의 모습이 처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(25:3-21, 렘 39:6-9).
권력을 잃어버린 왕, 이름도 잃어버립니다(23:34, 24:17).
성전과 왕궁을 포함한 건물들을 불살랐습니다(25:9).
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습니다(25:10).

죄에 ‘사로잡힌’ 유다도, 이스라엘처럼 ‘사로잡혀’ 갑니다(17:23, 25:21).

• 쓴맛 하나님, 단맛 하나님

끝(The End)입니다. End에서 And로... 하나님께서 책장을 넘기십니다.

끔찍한 심판 이후에도, 다윗 언약이 여전히 유효합니다(25:27-30, 삼하 7:15-16).
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(왕상 11:36). 여호와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.

눈앞의 현실로, 신앙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.
분명한 것은 <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다>는 것입니다.

인간의 판단과 다른,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.
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칩니다. 결국, <은혜>가 율법을 이깁니다.